

충남 미래 연구를 시작하며

“충남에서 계속 살지 않을 거예요. 직장은 서울에서 구해야지요.”
 “재미가 없어요. 다양한 문화 시설이나 공연 등 즐길 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물 맑고 공기 깨끗하지만 병원, 학교처럼 편의 시설도 좋아졌으면 해요.”

—충남도 청소년이 그린 미래상 중에서

충남은 지금 중대한 발전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

지구촌은 기후변화, 글로벌화, 권력분산, 스마트화 등 패러다임 전환기에 처해 있고, 지구촌 경제에 편입되어 있는 충남은 이 거대한 흐름들을 정면으로 맞이해야 한다. 이뿐인가? 우리나라는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삶의 질 중시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경제 성장 일변도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의 부상으로 인해 수출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던 우리나라의 발전 방식이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민의 삶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 미래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사실 지금까지 충남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그다지 절박하지 않았다. 충남은 지난 20년간 수도권 규제로 인한 반사 이익을 누려 많은 기업들이 찾아들었고, 지금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지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은 이제 더 이상 ‘이삭 줍기’를 할 상황이 아님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충남의 눈부신 경제성장 이면에는 전국 최고 수준의 노인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어린이 행복도가 감추어져 있다. 또한 충남의 주말부부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사람이 살고 싶지 않은 지역에 무슨 미래가 있겠는가?

그렇다고 충남도가 미래에 대한 고민을 안 하겠는가. 부문별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 다만 대부분의 부문별 중장기 계획은 미래에 대한 고민이 제한적일 수 있다.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본 충남의 미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프로젝트는 충남 미래에 대한 대중적 논의의 플랫폼이어야

우리는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충남의 미래를 둘러싼 대중적 논의를 촉진하고, 보다 미래 지향적인 정책 연구의 지평을 높이고자 충남 미래 연구를 기획했다.

충남의 미래 연구가 아직 초기 단계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연구의 융·복합적 성격을 극대화하고 그 성과를 집약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상호 교류 촉진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충남 미래 연구서는 바로 그러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 보고서보다는 대중들의 접근이 용이한 단행본 형태가 제안되었다.

충남도의 정책 연구기관인 충남연구원,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소속 연구원들은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여 2015년 4월부터 충남 미래 연구 추진을 위한 '충남 2040 기획편집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했다. 또한 정책 연구기관, 지역 대학, 국책 기관, 유관단체 등의 경험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문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미래 연구 프로젝트는 충남도의 용역 과제도 아니고 특정 기관의 수탁 과제도 아닌, 자율적인 협동 연구로서 의미를 지닌다.

도민의 행복을 지향하고 미래를 창조하는 시각에서 출발

기획편집위원회는 첫 모임부터 이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성격과 지향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쳤다.

우선 "이 프로젝트는 '도민 행복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기존 지자체 차원의 미래 연구는 대부분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암묵적 혹은 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있었다. 이러한 지향은 정책 우선 순위에도 반영되어 산업 경쟁력, 투자 유치가 우선시 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은 후순위로 밀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미래를 '창조'하는 접근 방식을 취한다. 기존 미래 연구는 대부분 미래 트렌드에 대한 '대응' 전략이었다. 미래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지역의 대응 전략을 도출하는 접근이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주류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충남도의 특성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한 채 결과적으로 어느 지역,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보편적 전략이 나올 우려가 있다. 이에 본 프로젝트는 현실 진단과 미래 트렌드를 바탕으로 충남도민이 바라는 미래상을 '창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데 역점을 두고자 했다.

왜 2040년을 목표로 설정했을까? 2040년은 너무 먼 미래이므로 손에 잡히는 2030년을 목표로 잡자는 전문가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법정 계획이 아닌, 자율적 미래 연구인 만큼 형식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미래 비전을 탐색하고 상상해 보자는 의미로 2040년을 목표 연도로 잡았다.

내용적으로 '사람', '삶터', '일(자리)', '돌봄'을 중심으로 구성

이 프로젝트는 1부터 10까지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미래 종합 연구서가 아니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우리는 '사람', '삶터', '일(자리)', '돌봄' 등의 핵심 영역에 집중하고자 했다. 이 프로젝트는 보편주기식 종합적 연구 성과가 아닌, 본격적 미래 연구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핵심 영역 선정은 기존 개발 중심 영역을 탈피하고 도민 행복을 균형 있게 검토하기 위한 노력의 소산이었다. 공간 개발과 산업 경제

중심의 영역을 사람과 돌봄으로 확대하고 각각 '삶터'와 '일(자리)'로서 재해석하고자 했다. 특히 '돌봄'을 독립된 축으로 설정한 것은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의 핵심 요소로서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의도이다.

이 프로젝트는 1권과 2권으로 나뉘며,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다. 키워드는 글로벌 트렌드, 국내외 중장기 변화 양상, 충남의 구조적 특징, 역사적 통찰, 현실 진단, 충남도민 의식, 충남의 미래상과 실현 방향, 국내외 사례 등이다.

그중 근본 줄기는 현실 진단, 충남의 미래상, 미래상 실현 방향 등 3가지이며, 글로벌 트렌드, 국내 중장기 변화 양상, 충남의 구조적 특성, 역사의 통찰 등은 근본 줄기를 둘러싼 맥락으로 설정했다. 이외 충남도민 의식, 국내외 사례 등은 충남의 미래상 실현 방향을 내용적으로 뒷받침하는 재료로서 역할을 한다.

집필진의 노고에 진심어린 감사

이 프로젝트는 앞서 소개했듯이 충남 미래 연구의 본격적 시작을 위한 마중물이다. 오랜 기간 준비해 온 기획편집위원들은 인기 드라마 대사인 "이 어려운 걸 자꾸 해냅니다."처럼 뿌듯함과 함께 아쉬움도 남는다.

1, 2권의 책을 시간차를 두고 펴내다 보니 독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 기획편집위원회에 주어진 시간과 자원을 핑계 삼더라도,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불편을 드린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속담에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이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연구를 하고, 연구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친다."는 말이 있다. 말로 어찌하는 것은 쉬워도 직접 글로 쓰며 실행에 옮기는 노고에는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 프로젝트의 집필에 어렵게 참여하신 모든 연구원과 학자들에게 경의와 함께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2040년 충남의 행복을 상상하며 2016년 어느 날에

기획편집위원회 일동